

## 4~5» 양 캠퍼스 선거



## 8» 키워드 분석



##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 신청대상 :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2. 1차 신청기간 : 2016. 11. 17(목) ~ 12. 13(화)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양 캠퍼스 후보 인터뷰

서울캠퍼스 호텔관광대학 컨벤션홀에서 49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30대 총여학생회 정책공청회가 열렸다. 양캠 선거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사진=이수형 기자)

# 20년만의 신설학과, 남은 과제는?

## SW 융합학과 신설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 지난 11월 17일 2017년도 수능이 치러져 각 대학은 17학번 학생의 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학교에서도 각종 수시 전형의 시험이 실시되는 가운데 국제캠퍼스(국제캠)엔 20년 만의 신설학과인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또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과학 클러스터-프라이머'를 추진하며 논의된 과정을 되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국제】소프트웨어융합학과(SW융합학과)는 '미래과학 클러스터'에서 논의되고 지난 프라이

머시 당시 처음으로 공개됐던 학과로, 프라이머사업 당시 기획됐던 학과들 중 가장 먼저 신설되는 학과다. 당시 미래정책위원장 이었던 신상협(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프라이머사업 만을 위해 이번 논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다"며 "사업에 선정됐을 때만큼 빠른 추진은 힘들겠지만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20일 우리학교가 '프라이머사업 후속 정원조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SW융합학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논의됐다. <관련기사: 대학주보 제1607호 1면> SW융합학과는 지난 6월에 신규트랙을 신설하고 8월까지 본격적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SW융합학과가 당장 내년에 신설될 수 있는 이유는 교육부 정책에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대학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SW융합학과는 프라이머사업에서 기획된 학과인 만큼 예외사항에 해당된다.

SW융합학과는 국제캠에 20년 만에 등장한 신설학과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동시에 많은 불협화음이 일었고 그에 상응하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학과 신설을 위한 정원조정 방안을 급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외국어대학 교수들이

국제캠 황주호(원자력공학) 부총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황 부총장이 이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관련기사: 대학주보 제1608호 1면>

현재 SW융합학과는 수시 모집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학과 소개 ▲교수진 ▲교과과정 및 이수체계도 초안 등을 게시한 상태다. 이번 수시모집에선 SW융합학과에 총 49명의 학생을 모집했으며 747명의 학생이 지원했다. 현재 SW융합학과와 관련해 담당교수 및 대학본부 측에서는 ▲산업체와의 연계 ▲신임 전임교원 총원 ▲학사 운영 방침 최종안 ▲단과대 신설 ▲신설 3년차부터 강의 공간 등의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3면으로 이어짐

## Newsmaker

제 25회 대통령상타기 전국 고전읽기 백일장 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박제형(경영학 2010)



##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글을 쓰다

임창민 기자 ckdals49@khu.ac.kr

#. 지난달 실시된 '제25회 대통령상타기 전국 고전읽기 백일장 대회'에서 박제형(경영학 2010)군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고전의 보급과 우리 고전의 교훈을 알리기 위해 25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 대회는 전국 초·중·고·대학,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예선에만 총 84,116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군을 만났다.

택하고 나서는 도전할 기회가 없었다"라며 "심지어 언론정보학과에서 들었던 기사 작성 수업에선 '감성적인 글'을 쓴다고 혹평을 받기도 했다"고 웃었다. 그 수업의 화점은 C+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하며 이와 관련된 교양 수업에 충실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군은 가장 도움이 됐던 수업으로 이상임(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논어의 읽기'와 '낙원과 유토피아의 상상력'을 꼽았다. "이 수업에서 고전에 들어있는 과거의 문학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구성하고 깊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그는 "이 교수님이 하셨던 '내면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고 대회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박 군은 취업난으로 힘든 시대에 '인문학'이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야임을 강조하면서 대학이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박 군은 "웬만하면 글 쓰는 일을 계속하고 싶고 특히 수필을 쓰고 싶다"면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은 취업 준비에 몰두하기 보다는 학교생활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 '윤종신병'이라고 불리는 크론병 지병으로 고생했는데 오히려 아프다 보니 무슨 일든 시작해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무작정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서 다양한 경험과 시도를 했으면 한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전문가 칼럼

100만 명의 촛불집회가  
'휴지줍기 운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송영복(스페인어학과) 교수 >> 7면



# 학점교류로 시작된 간담회, 풀리지 않은 갈등

## 아동가족학과 내 논란

임창민 기자 ckdals49@khu.ac.kr

【서울】지난달 31일 청운관과 생활과학대학 게시판에 금혜린, 유미래, 조가람, 조다현(아동가족학 2012)의 두 번째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9월 26일 학점교류 신청을 불허한 교수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던 대자보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네 학생은 시간표가 임의로 변경된 '정신건강' 과목을 대신해 숙명여대 온라인 강의를 학점교류로 요청했다. 그러나 첫째, '표준교육개요

에 어긋나는 커리큘럼과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 탓에, 둘째, '학과회의에서 의결돼 수년 전부터 적용됐던 원칙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학점교류를 승인받지 못했다. 이번 2차 대자보는 교수의 불허사유에 대한 반박, 회의록 공개요구, 간담회에서 교수의 불미스러운 언행에 대한 비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9월 26일 붙었던 첫번째 대자보 게시 후, 교수진과 관련 학생 네 명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13일 아동가족학과 구성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대자보를 붙인 4명의 학생과 아동가족학과와 전제 교수진 6

명, 그리고 아동가족학과 학생대표를 비롯한 4명의 학생과 생과대 행정실 직원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세 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는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의 주장이 철저히 평행선을 이룬 채 종료됐다.

이 날 간담회는 학점교류 문제로 시작됐으나, 진행될수록 논의사항이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수진의 교권 사이의 대립' 양상으로 전개됐다.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학점교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이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과, '학과 회의록을 공개해 의혹이 가

는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과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지난 1차 대자보 당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음에도 이 요청이 거절된 사유가 불분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은 학과회의 과정이 그동안 정당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학과 측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학과회의에서 의결돼 수년 전부터 적용되었던 원칙'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명문화 돼있는 학칙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여부 두 가지였다.

▶6면으로 이어짐



시선

사설

혼란한 시국에 당면한 선거에 부쳐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일 개인, 특히 선출직 리더로서의 일 개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나의 직위, 나의 당선은 곧 나 자신에 대한 구성원의 무한 지지일 것이라는 착각이 그것이다. 이 달콤한 오류에 빠진 리더는 나의 결정을 중요시하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 하며 나의 가치관이 바로 공동체의 가치관이라고 쉽게 착각한다.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 시스템의 리더라는 것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진실에 가깝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리더는 항상 듣고 근면하게 중재하고 끝없이 소통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의 리더란 본질적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다원주의 물결 속에 파편화된 개인들의 집합체인 공동체에서 민의를 대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저마다 다른 생각과 판단과 주장을 가진 구성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여러 마찰을 중재해야 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통해야 한다. 듣고, 중재하고, 소통하는 것은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리더에게 있어 ‘의무’라기보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구성원은 후보자 개인의 인품이나 실제 성격, 가치관, 기호, 친인척 관계를 보고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투표하기에 공식 선거기간은 너무나 짧고 공개되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구성원은 다만 후보자의 공약과 그 공약의 이행 가능성, 그리고 접근가능한 후보자 관련 정보 정도에 근거해서 투표에 임한다. 때문에 리더는 매순간 공인으로 서의 선명한 자기 인식 속에 사적 선호나 욕망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골몰하고 힘써야 한다. 이런 이유로, 민주주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는 실패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과오로 인한 피해는 대체로 구성원 전체가 분담하게 된다.

지난 1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있었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임기 마지막 해외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니아코스 재단 연설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관점을 갖고 있지만, 민주주의는 한 개인보다 훨씬 큰 것이기에 매끄러운 정권 이양이 가능하도록 최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민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자로서,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신념과 정 반대 위치에 있는 후임자를 선택한 미국민을 바라보며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이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에 갖는 함의를 분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다.

좋은 리더는 항상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의의 흐름과 함의를 파악하고, 그것이 나아갈 방향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사적 인식이 공적 인식을 덮고 귀머지 가리는 순간, 리더는 더 이상 민의를 다룰 능력을 잃고 비극적인 일 개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구성원 모두는, 그런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

국제캠 작은 나눔 가을 음악회 생과대, IFMA 국제인증 획득

미디어 여론동향 2016.11.7. ~ 11.20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2016 생활관 작은 나눔 가을 음악회’가 지난 10일 예술·디자인대학 A&D홀에서 열렸다.(작은 나눔을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대학주보 온라인, 2016.11.14.) 국제캠퍼스(국제캠) 우정원과 제2기숙사생들의 기부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까지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는, 이날 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이벤트와 강연, 공연이 진행됐다. 가을 음악회 모금액과 국제캠 양 기숙사에서 모인 기부금은 3백만 원 가량으로, 지역사회의 불우 청소년과 결혼가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선 휴학을 권

만평



이 주의 주제 - 식품영양학과 내규 변경

대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현진 기자  
ohyunjin@khu.ac.kr

식품영양학과(식영과) 전공 내규가 변경됐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전공 수업 재수강 시 최대 취득 가능 학점은 B+로 제한된다.

이번 식영과 재수강 제도 변경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문의하기 위해 먼저 생활과학대 행정실에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행정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한정돼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수에게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식영과 윤기선 학과장에게 메일을 보냈다. 당일 밤 교수가 메일을 읽었음을 의미하는 ‘수신확인’이 떠 있었다. 하지만 답변이 오지 않아 이를 뒤 같은 내용을 보낸 문자에 “메일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재수강 제도에 대해서는 학교 본부와 이야기하라”는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하라는 대로 학교 본부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학사지원과는 “식영과 재수강 제도 변경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오늘 통화로 이 사실을 처음 접했고 이후에도 답변은 단과대 행정실을 통해 받으라”는 실망스러운 대답만 주었을 뿐이다. 행정실은 교수로, 교수는 학교 본부로, 본부는 행정실로 책임을 돌렸다.

철웅성 같은 책임회피의 삼각관계 밖,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틈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재수강 제도 변경과 같은 학과 전공 내규의 개정은 학과 교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교수회의에서 출석 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학사 변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의견 교환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가 학칙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학생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구조 자체도 문제다. 식영과 학생회는 내규 변경 후해야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 학과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큰 소동을 얻지 못했다. 당장 다음 학기부터 재수강할 과목의 학점을 걱정해야 하는 식영과 학생은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어도 답을 얻을 수 없다. 물어도 대답해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식영과 재수강 최대 학점의 B+ 하향조정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상황평준화된 학점을 수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 경영대 ‘B0물’이 그러하고, 중앙대는 올해부터 F학점 이외에는 재수강을 금지했으며 고려대, 한국외대 등도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개정된 재수강 제도를 적용한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조차 교육의 한 주체인 자 제도의 변경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는다면,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찌 할 것인가. 그 피해는 금금한 것을 답해주는 곳 없는 답답함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규정’이 ‘상식’을 제학하는 사회

세시봉

김도엽 <편집장>



‘최소실 특검법’이 국회 재적인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을 얻어 지난 17일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검사로 추천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추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압도적인 찬성을 얻은 국회를 더불어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특검법에 따르면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3일이 넘을 시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다. 따라서 임명하지 않아도 소위 ‘뻔뻔하게’ 넘어 갈 수 있는 조건은 갖춰지는 것이다.

교내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어나는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최근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의 연임 도전,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재수강 전공 내규 변경 논란 등이 그렇다. 총학생회장의 연임의 경우 학생회 회칙과 세칙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 연임의 합법성을 물을 수 없다. 개정된 단과대 규정이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더라도 규정 상 개정 과정에 학생은 참여할 자리가 없다.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그것이 국가이던, 학교이던 규정은 그 집단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도의적인 차원, 상식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규정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캠퍼스 식품영양학과와 재수강 B+학점 제한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학생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신설 규정이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설명 학생이 반대를 하더라도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이다.

규정 뒤에 숨어 아웅하는 사람들

집단에 도움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그러나 대학주보 기자가 ‘상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상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영양학과에는 ‘학과 전공 내규의 개정은 학과 교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교수회의에서 출석 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오로지 학과 교수만 규정을 다룰 권한을 갖고 당사자는 논의에서 소외된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없다. 규정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은 변경 과정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언제 바뀌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도 있다.

‘악법도 법이다’이니 따라야 하는 것인가? 지난 11월 12일 광화문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광장에 모인 100만의 시민이 잘못된 규정에 대한 답을 줬다. 이번에는 부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이번 식품영양학과 문제도 답은 같다. 학생의 반발이 너무나도 뻔한 상황에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발을 빼는 행위는, 지금 당장은 어물쩍 덮고 갈 수 있는 사항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집단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영 02-441-7317(미레기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1면에서 이어짐

① 정체성 논란… 컴퓨터공학과와 유사학과?

SW융합학과는 기존 학과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교육 하되 예술·디자인, 기계공학, 산업경영공학, 인문계열학과와의 연계를 통한 ‘열린 학과’를 지향한다.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SW융합학과 신설로 인한 여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SW융합학과가 컴퓨터공학과와 전공과목을 공유하고 있는데다가 타 학과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균관대학에선 2016학년도까지 1학년 학생을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전전컴)로 일괄 모집해 성적을 기준으로 2학년년부터 컴퓨터공학과 또는 소프트웨어학과로 분배했다. 두 학과는 커리큘럼 및 교수진이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소프트웨어학과에 비해 컴퓨터공학과와의 경우 장학금과 취업보장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왔다. 결국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불만이 일어 2017학년도부터 컴퓨터공학과는 소프트웨어학과로 통합됐다.

SW융합학과와 교육과정 작성 및 기획을 도맡고 있는 이성원(컴퓨터공학) 교수는 “SW융합학과는 일종의 특별학과가 아니다”며 “애초 기업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성균관대학의 SW학과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학과체제로는 학문의 새로운 트렌드를 쫓아가기 어렵다”며 “우리학교만의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차별 문제에 대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SW융합학과와 과목을 듣거나 다전공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제2의 컴퓨터공학과가 되지 않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SW융합학과는 다른 단과대학과의 연계를 기본으로 한다. 이 교수는 “각 학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 공간문제: 전정대 강의실실 부족

SW융합학과가 일단 설립되고 나면 전자정보대(전정대)에 위치하게 된다. 현재 전정대의 강의실 사용률도 높은 편인 데다가 실습실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공간문제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6학년도 2학기 전정대 소속 학생 수는 1,404명(재학생 기준)이며, 강의실 사용률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전정대를 제외한 국제캠 소속 단과대(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외국어대학, 국제대학, 체육대학)의 평균 강의실 사용률인 65.6%에 비해 높은 수준이

다. 2016학년도 2학기에 실습실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래밍 강의는 30개가 개설됐으며, 수강생은 중복을 포함해 총 976명에 달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5곳(B01, B05, B07, B09, B11호) 뿐이다.

2017년에는 SW융합학과 전공과목 2과목(이론 1과목, 실습 1과목)이 추가될 예정으로, 2018년까지 공간 부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년차인 2019년부터는 실습실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 측에서도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성원 교수는 “학기별로 한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므로 현재 여건에서도 당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다만 “2018년부터 타 학과에서도 다전공 및 부전공을 대규모로 지원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타 단과대학의 강의실을 공유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외적으로 기업의 지원이 확정되면 단과대 신설을 통한 공간 문제 해결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에 공지된 사항에 따르면 SW융합학과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연계한 R&D센터 건립 ▲중소기업 협회와 연계한 산학협력관 건립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에 대한 제안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로 조만간 지원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중소기업협회의 경우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다.

단과대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의남(컴퓨터공학) 교수는 “향후 R&D 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체들의 연구공간, 학생들의 강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며 “강의 및 실험실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③ 재원확보 문제: … 산업체와의 연계방안

SW융합학과를 통해 우리학교는 2차례 고배를 마신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과 함께 내년으로 예정된 ‘LINC+ 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우리학교는 각각 약 120억, 40억여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 2012년에 시행된 ‘LINC 사업’에는 우리학교가 ‘전체정원 중 이공계열 인원이 20% 이상’ 돼야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SW융합학과를 통해 정원이 조정되면 이에 대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재원을 위해 학교 측에서 급하게 학과를 신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성원 교수는 “SW융합학과와 관련된 논의는 프라임사업보다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며 “외부 재원이 없어도 학교신설은



▲ 지난 9월 27일 국제캠퍼스 전자정보대학에서 SW융합학과 관련한 학사제도 및 교육과정 설명회가 열렸다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기업의 지원을 전제로 학교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며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만큼 최대한 외부에서의 지원을 얻고자 발품을 팔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의 연계는 취업을 제고와 산학협력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님들이 주변 회사들과 소통하면서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에 유리한 모델을 만들어달라는 등의 피드백을 받고 있다”며 “무조건 기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④ 단과대학 설립… 무제한 추진?

학교 측에선 컴퓨터공학과와 SW융합학과만의 단과대학을 만들고, 건물을 증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의남 교수는 “전정대 강의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은 약간 불편하겠지만 추후 강의실 부족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현재 산업체와 협의를 통해 컴퓨터공학-SW융합학과와 새 단과대 시공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정대 행정실 박은규 계장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컴퓨터공학-SW융합학과와 단과대 신설 여부에 관한 소통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차 소통회의는 컴퓨터공학과 소속 교원과 재학생이 참여해 11월 넷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학생들 사이에서는 사업선정의 성공을 가졌해 대책 없이 학과를 신설하는 이런 상황이 프라임사업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나타날까 불안감이 존재한다. 컴퓨터공학과 한진원(컴퓨터공학 2013) 학생회장은 “사업 선정에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염두에 두고 강의실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프라임 사업에 떨어지고 1년도 안 된 상태에 무리하게 새 단과대 설립을 추진한다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⑤ 소통문제: … 구성원에게 정보제공

SW융합학과는 구체적인 기획단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정보를 사전에 접하지 못해 당혹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SW융합학과 설명회 개최 이전까지

학생뿐 아니라 타 단과대 교수에 대해서도 SW와 관련한 진척사항 및 회의 일정이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교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이후 공개적인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있다면 무조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 역시 “공과대학 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신설단과대학에 대한 공학계열 교수님들과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의 의견을 물어 신설단과대 설립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현재 의견 조율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W융합학과 교육과정 최종안이 수시 모집이 이뤄진 후에 나온다는 사실은 문제다. 이는 충분한 계획·검토과정을 거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성원 교수는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에 지원하던 2년 전부터 방향성을 고민해왔고, 신설이 결정된 후로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 및 수정을 해온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재학생 및 입학예정자

● 1차 학생 신청기간 : 2016.11.17.(목) 09:00 ~ 12.13.(화) 18:00

- ※ 일·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가능(마감일 제외)
- ※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할 것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 원활한 신청을 위한 권역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기간 내 권역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나, 가급적 권역별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할 것을 장려함

수도권(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 외
2016.11.17.(목) ~ 12.08.(목)	2016.11.22.(화) ~ 12.13.(화)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16. 11. 17.(목) 09:00 ~ 12. 16.(금) 18:00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

●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 모집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에서는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진행되는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본 박물관을 비롯한 전국의 7개 박물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http://www.museum.or.kr/)

● 신청자격 : 박물관·미술관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

● 참여인원 : 000명

● 봉사기간 : 2017년 1월 ~ 2월 말(세부일정은 관과 봉사자 간 조율)

● 참여혜택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최소 5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함)
- 박물관·미술관관련 교육(기본소양교육) 12월 23일(금) 예정
  - ※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별도 공지

● 모집기간 : 11월 3주 ~ 12월 3주 (자세한 일정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 접수방법

Step1. 문화체육자원봉사홈페이지(http://csv.culture.go.kr) 통해 접수 (봉사 완료 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가입 요망)

회원가입 → 통합검색 창에 한국박물관협회 “제10기 한국 대학생 박물관·미술관 문화시민봉사단 모집” 제목의 글 검색 → 신청하기 클릭

Step2. 서류 제출(kormuseum@hanmail.net으로 제출)

- ①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신청서(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 ② 재학/휴학 증명서

● 서류전형/면접 : 12월 3주 ~ 12월 31일(토)/ 해당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진행하며, 봉사희망 박물관·미술관 면접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배치 예정

● 문의 : 02-795-0959 / 김보현 (한국박물관협회 담당자)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2016-2 온라인 성인지 향상 이벤트

성평등상담실에서는 경희 재학생들의 성 인지 향상을 위해 온라인 향상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대상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  
기간 : 2016. 11. 14(월) ~ 2016.12.11 (일)

● 참여방법

1. 경희대학교 성평등상담실 홈페이지 접속한다.  
(http://web.khu.ac.kr/~happyou/)

2. 홈페이지 첫 화면의 특별예배 온라인 교육 (1~4)을 모두 수강한다.

3.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특별예배 퀴즈 양식 다운로드 후 답안을 작성한다.

4. 성평등상담실 이메일로 제출한다. (happyou@khu.ac.kr)

● 다 맞은 사람에게 한하여 추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품을 드립니다.

1등 셀리 보조배터리 (4명)

2등 플스킨 x 라인 다이어리 (6명)

3등 브라운 모음 텀블러 (4명) or 브라운 32GB USB (4명)

4등 초코샌드 (2명) or 5단 미니 우산 (3명)

5등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0명)

● 결과발표 : 2016.12.13 (화) 14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문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 총여학생회 선거

비운동권 학생회, “학교 외부보다 학생에게 집중할 것”

‘경희의 화합’ 총학 후보  
이수형 기자 dltbdf112@khu.ac.kr

**Q. 출마한 계기는?**  
창업을 두 번 해보고 전문직시험(노무사) 준비, 공무원시험 준비도 해봤다. 다양한 경험을 해오다 보니 학교에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되더라. 고학번으로서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느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출마했다. 취업시장 사정이 나쁘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기도 했고, 경험자로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싶었다.

**Q. 선거본부(선본)명을 소개해달라**  
공동체라면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갈등이 존재한다. 우리대학에도 여러 갈등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을 외면하기보다는 드러내고 공론화해서 학생, 대학본부, 교직원 등 경희를 구성하는 주체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선본명을 ‘경희의 화합’으로 정했다.

**Q. ‘비운동권 학생회’를 내세우고 있는데?**  
강의실 피티에서 비운동권이라고 이야기하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예시로 많이 질문한다. ‘이런 시국에 총학생회(총학)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되냐’는 식이다. 박근혜 게이트처럼 상식 밖의 경우에는 당연히 목소리를 낼 것이다. 실제로 12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를 지지하는 학생들은 후보 개인의 성향이나 인생관이 아니라 공약에 공감해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공약을 지키라고 실어준 힘을 다른 활동에 쓴다는 것은 동의 받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선본의 성향이나 인생관이 만 이천 명 학생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이다. 이번 시국에 대해서는 현 총학이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선본이 당선되면 내년을 준비할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종결되고 상반기 취업시즌이 돌아오면 학생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돌봐줘야 한다고 생

각한다. 이 때문에 선본을 비운동권으로 표현했다.

**Q. 공무원 장학 신설이 왜 필요한가**  
공약집에는 공무원시험 관련된 부분만 실려 있지만 취업스터디와 같은 보다 많은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 있다. 공약집에 그것을 실지 않은 이유는 이미 취업진로처(취진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취진처 예산삭감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실질적인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외의 취업지원은 취진처 삭감예산을 되찾는 방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많은 수의 학생이 노량진이나 공무원시험준비반(공시반)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안다. 경경대학교와 문과대학이 공시반 운영권을 두고 대립했을 정도다. 그러나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다. 그들 사이에서 ‘경희대까지 와서 9급 준비하나’, ‘학교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따위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흔하다. 자기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 장학을 9, 7급에까지 확대하면 좀 더 자유롭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기대한다.

**Q. 재원마련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재원마련 부분은 공시장학 신설에 관해서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 취진처 예산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지원예산까지도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대학의 재정문제는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논의되는데 그칠 것이 아니다. 학교재정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학내 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여러 제약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와의회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교수들 사이에도 재정악화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수와의회에 문제원인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실제로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계신 교수

님들이 많으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결국 투쟁의 영역이라고 본다.

**Q. 학내윤리강령이란 무엇인가?**  
고 서정범 교수님 사건을 주도로 주체는 총여학생회(총여)였지만, 다음 주체는 총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내윤리강령은 공신력 있는 발안주체인 학생대표기관의 윤리성이 대표자의 개인적인 자질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학생대표기관의 대표자가 되더라도 고 서정범 교수님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제도로써 개인적 자질의 부족함을 메워줄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강제력을 부여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최소한의 윤리성이 지켜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윤리강령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Q. 재논의 돼야하는 성적평가방식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경영대학이 B0률을 시행한 이후, 재수강시에 받을 수 있는 학점을 제한하는 단과대학이 등장하는 등 성적평가에 대한 대학의 규제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대학의 역할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인데, 인위적인 서열화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평균 학점이 낮아지면 취업시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나 경영대학 B0률 관련 공청회에 참석했을 때 ‘벽에 대고 말하는’ 느낌을 받았다. B0률을 다루는 학교 측 태도가 워낙 강경했다. 또한 경영대학은 학생이 워낙 많으니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경영대학 학생회가 성적평가방식 관련 대응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 총학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Q. 성평등위원회 신설을 위한 공청회 개최, 논란이 뜨겁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공약이다. 총여가 학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공식기구인 상황에서 성평등위원회



▲ 정후보(우) 김민호(경영학 2011), 부후보(좌) 함현민(관광학 2015)좌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게, 자칫 여성 권리신장이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잠깐 회사에 다닌 적이 있다. 상사에게 커피를 타다 주니 “신입여직원이 있는데 왜 니가 커피를 타냐”라는 말을 하더라. “남자가 탄 커피가 뭐가 맛있냐”는 소리도 덧붙였다. ‘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런 대우를 받는구나’하고 충격을 받았다. 상사가 지목한 신입이 친한 친구여서 더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부터 ‘남성의 인식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데 학교에 돌아와 보니 총여에 건의하는 게 쉽지 않더라. 특히 남자가 총여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금기시 되는 분위기도 느꼈다.  
이러한 편견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성평등위원회 신설 공약으로 이어졌다. 공청회의 목적은 총여 폐지가 아니다. 우리 선본이 총여 폐지를 의도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우리 선본의 생각은 공청회 결과에 절대 개입되지 않을 것이다. 공청회에서 총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남녀 간의 생각을 교환

할 새 기구를 따로 신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대한 다수의 학생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12,000명 학생 중 여학생들이 7,000명이다. 공청회 결과에는 당연히 여학생들의 생각이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결과를 현실화하는 절차 또한 민주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당선 이후에 성평등위원회 신설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면 적극적인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총학 후보자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공론화 될 것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선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터부시했던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게기가 됐으면 한다.

**Q. 선거에 임하는 포부**  
우리 선본과 공약에 대해 많은 학생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다. 우리 선본 ‘경희의 화합’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당선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항상 겸손하고 노력하는 총학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지지 부탁드린다.

“7,000 여학생에게 다가가는 총여 되겠다”

‘우리사이’ 총여 후보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2년 동안 집행부를 하면서 여성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고, 고민도 했다. 현재 총여가 페미니즘을 공론화 시켰는데, 단순히 공론화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알고,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다.

**Q. ‘우리 사이’라는 선본명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모토가 ‘7,000명 여학생에게 더 가까이 가자’다. 학생들과 더 많이 소통해 ‘우리 사이’를 좁히자는 의미의 선본명이다.

**Q. 57지 공약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과 관련된 ‘총여 대나무숲 만들기’와 ‘Light Up’ 공약이다. 집행부를 하면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주제로 담론을 이어나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동시에 익명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여 대나무숲 만들기’ 공약을 걸게 됐다. ‘Light Up’ 공약이란 늦은 시간

에 규찰대를 운영해 어두운 학내는 더 밝게, 여학생들의 마음은 더 가볍게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말 뿐이 아닌, 실제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공약을 내게 됐다.

**Q. 총여는 현재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에는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이 운영되고 있다. 따로 총여 대나무숲을 만들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프라인 소통창구는 청운관 여자화장실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총여 페이스북 페이지는 주로 활동에 대한 알림을 하는 곳이라 학생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나,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제보를 받기에 적절한 공간이 아니다.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은 주로 학생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성주의적 주제에 대한 담론을 펼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총여 대나무숲을 만들어 오프라인에서 편하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Q. ‘Light Up’ 공약의 규찰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구성할

것이며, 봉사시간으로 인정 받도록 할 것이다. 특히 미술대학(미대)과 후문은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다른 곳보다 더욱 위험하다. 미대는 학생들이 야작을 할 때 외부인이 작품을 훼손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 두 곳을 위주로 규찰대가 순찰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3월에 먼저 실행한 다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겠다.

**Q. 현 총여 ‘투게더’의 자치회비 결산 공개 공약을 이어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어느 곳에서도 자치회비 결산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이’ 선본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2015학년도 총여 또한 임기가 끝나고 결산을 공개했다. 아마 이번 총여 또한 그럴 것 같다. 이 점에 의문을 가진다면 좀 더 자주 결산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의논해보겠다.

**Q. 전임 총여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나?**  
페미니즘에 대해 담론화 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칼럼니스트 등을 초대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의 경우, 작년보다 올해가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다. 페미니즘에 관심이 없었는데 총여 활동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다



▲ 정후보(우) 양해인(국어국문학 2015), 부후보(좌) 신다은(문화관광콘텐츠학 2015)

는 말도 들었다.  
또한 정책 피티와 강의실 방문을 할 때 확실히 여학생들의 눈빛이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페미니즘을 더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전임 총여의 활동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는?**  
페미니즘의 공론화가 공론화로 끝나지 않도록 여학생들과 총여,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겠다.  
또한 정책 피티, 강의실 방문 등을 통해 학생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최초 연임에 도전, “학생들의 신뢰 이끌어낼 것”

## ‘리액션’ 총학 후보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Q. 선본 리액션(Re:action) 소개와 출마하게 된 계기는?**

‘리액션’은 48대 총학에 이어 학생들의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겠다는 뜻의 연합선본이다.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와 함께 6개 단과대학(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공과대학, 체육대학, 예술디자인대학) 후보들이 함께하고 있다. 연합선본은 단순히 당선을 위해 모인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공통된 뜻으로 모였다. 이전 총학 회장으로서는 받았던 평가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더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개선하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어 출마하게 됐다.

**Q. 재임에 도전하는데 이전 총학과 달라지는 49대 총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처음 당선이 되고 공약을 이행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시간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꼈다. 예를 들어 지난 건물 건축이나 시설 개선 문제를 다루기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학교를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보

다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롭게 준비하는 49대 총학은 학생들의 복지정책은 기존 총학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반면 아쉽다고 평가된 학사제도 개정과 대외적인 문제는 소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리액션(Re:action) 선본 공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허황된 공약보다는 실현 가능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들을 내세우고자 했다. 이번 선거 공약이 새롭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가령 영통역 셔틀버스 노선 신설, 공약의 경우 처음 선거운동 기간에 내세웠던 공약이 아니었지만 총학 회장으로 일을 하면서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은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중시하는 공약은 ‘캠퍼스 간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난 총학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노력한 결과 임시차원에서 통합을 이뤄 진학예정자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에서는 국제캠을 분교로 인식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에 직접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캠퍼스의 명칭 변경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명칭 변경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들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울캠 총학과의 소통도 진행할 것이다.

**Q. 이전 총학에서는 서울캠 총학과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서울캠 총학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선 후 학기 초에는 함께 일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각 총학이 지향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문제처럼 중요한 학내 문제에 있어서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다고 생각한다. 대동제나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서울캠-국제캠 간 셔틀버스를 증차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학생회칙과 선거세칙 개정에 대한 공약도 있는데 개정의 방향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선거세칙에 많은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진행될 선거들을 위해 서러라도 세칙에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고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재임을 위해 출마하는데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많았다. 학생회칙과 선거세칙 중 애매한 표현이나 예외적인 규정을 고쳐



▲ 정후보(좌) 김병경(체육학 2009), 부후보(우) 이은홍(산업경영공학 2015)

서 명확히 하겠다.

**Q. 총학생회의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고 소개했는데 어떠한 홈페이지를 구상 중인가?**

현재 총학생회 안내사항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되고 있다.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생회의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총학 이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지만 이들만으로는 12,000명의 학생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없었다. 또한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페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총학의 많은 도움과 혜택을 받게 하고 싶다. 기존 학교 커뮤니티 홈페이지와 우리학교 학생들에 의한 커뮤니티 ‘쿠플라자’가 있지만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다. 새로 만들게 될 총학의 홈페이지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이는 총학이 앞으로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은?**

48대 선거 때는 최초의 체육대학 출신으로서 그리고 이번엔 최초의 연임을 시도하게 돼 의도치 않게 논란과 화제의 인물이 됐다. 하지만 어떠한 개인적 이익이나 의도 없이 열심히 일해 왔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직접 행동하면서 내가 다니는 우리학교가 모두에게도 정말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겹쳐서 수용할 것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학생들이 보낸 신뢰만큼 더 열심히 일하고, 만약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생들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학교를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

# “화합을 위한 총여가 될 것”

## 기호 1번: ‘리액션’ 총여 후보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지난 총여 집행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인권에 대해 생각했다. 더 나은 경희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을 넘어 서로의 인권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출마하게 됐다.

**Q. 남자 부후보가 출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출마 이유는?**

‘총여는 여학생만을 위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하지만 총여는 여학생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남학생도 필요하다면 총여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총여가 학생 전체를 위한 기구라는 인식

이 퍼지길 바라는 생각에 출마하게 됐다.

**Q. 현 총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가?**

총여는 남학생에게 투표권을 개방하며 총여가 전체 학생을 위한 단체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이어받아 전체 학생을 위한, 화합의 기반을 다지는 총여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총여 게시판을 설치해 학생과 보다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Q. 남학생에게도 총여 투표권이 개방됨에 따라 총여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총여는 전체 학생의 권리를 위한 곳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화합하고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후마니타스칼리지 연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시민교육 등의 교과목에서 총여가 함께 할 수 있을만한 주제로 활동하는 학생을 봤다. 여건이 된다면 이런 학생을 총여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밖에도 공모전이나 토론회, 캠페인과 같은 행사를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싶다.

**Q. 남/여 휴게실과 단과대 내 달거리카페 봉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시범적으로 휴게실에 야간 봉사자를 두고 운영했다. 휴게실 이용자와 봉사자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단과대 내의 달거리 카페까지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휴게실의



▲ 정후보(우) 정은재(시각정보디자인학 2015), 부후보(좌) 김상현(응용물리학 2013)

안전 문제 해결과 학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는?**

항상 학생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총여가 되고 싶다. ‘화합’은 남녀의 화합뿐 아

니라 학생과 총여의 화합도 의미한다. 특히 남자 부후보의 출마를 통해 총여를 모든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라고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앞에서 이끄는 학생회도 좋지만 뒤에서 학생을 받쳐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생을 뒷받침해주는 학생회가 되겠다.

# “아직은 총여의 역할이 필요할 때”

## 기호 2번: ‘재움’ 총여 후보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Q. 입후보를 결심한 이유는?**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나오게 됐다. 학생이 학교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싶다.

**Q. 현 총여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인가?**

현 총여가 ‘같은 여(如)’자를 지향했다면, ‘여자 여(女)’를 지향하고 싶다. 처음 총여가 만들어졌을 때보다 여권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는 여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총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우정원 앞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을 듣고 더욱 총여의 필

요성을 느꼈다.

**Q. 남학생들에게도 총여의 투표권이 개방됨에 따라 총여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만큼 남학생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총여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남학생 중에서도 총여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점에서 총여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Q. ‘성을 뛰어 넘어, 권리 찾기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총여의 설립 목적은 대학 내에서 여학생의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여의 기본적인 역할은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리 찾기 캠페인은

여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찾는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Q.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총여 내에 성범죄 신고센터를 신설해 성범죄 피해자가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총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예정이다. 총여 홈페이지나 전화를 설치해 상시 창구를 두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성평등상담실과 연락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사안에 대해 총여가 함께 대응할 것이다. 또한 OT, MT 기간에 캠페인 실시와 가이드북 제작 등 성폭력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Q. 심야 규찰대 근로 장학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중앙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법에서 착안했다. 오후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오전 2시로 시간대를 나누고 각 시간대



▲ 정후보 황유민(의류디자인학 2016)

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의 조를 이뤄 학교를 순찰하도록 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아직은 총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위험 요소는 완전히 사

라지지 않았다.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을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학교를 바꾸는 것이 목표이다.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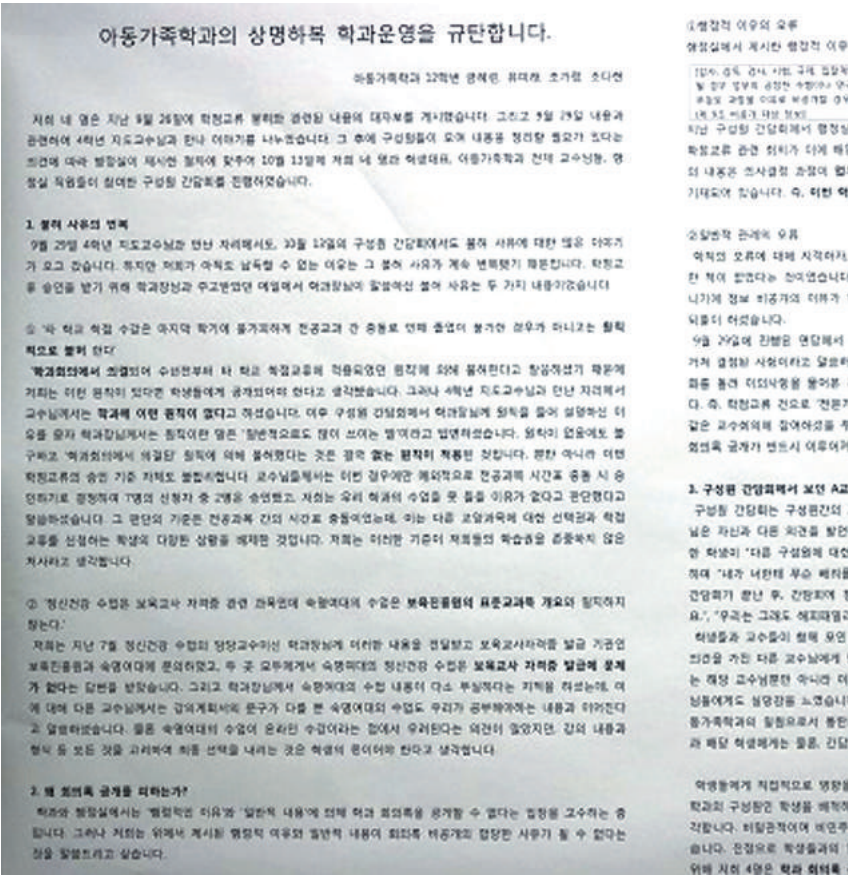
## ▶1면에서 이어짐

아동가족학과 A교수는 “문서화된 내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공교수의 승인을 요한다’는 학칙이 분명히 있다”며 “정신건강 수업은 담당교수인 C교수에게 권한이 있었고 학점교류 요청 강의가 온라인 강의였던 점과 전공수업 충돌 등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 학점교류를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또 A교수는 “애초에 수업 담당교수에게 결정권이 있었지만 학생들을 배려하고자 추가적으로 학과회의를 통해 4대 1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학과회의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학과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본질과 상관없는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신건강’ 과목 담당교수였던 C교수는 “학생들이 학점교류를 요구했던 강의가 온라인 강의였던 점이 여러 불허사유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금혜린 양은 “시간표가 임의로 변경된 상태에서 그 피해를 학생에게 전가하는 듯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적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심을 키울 뿐이다”고 주장했다. 조다현 양은 “학점교류 불허가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들어서 그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니 의혹만 가중된다”며 “학점교류는 이미 끝난 문제이고, 학과 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

## 학점교류에서 시작된 학과 내 권위주의적 운영에 대한 의혹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는 것 중 또 다른 점은 간담회에서 A교수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표한 B교수에게 불미스러운 발언을 했고, 이를 제재하려 했던 학생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b교수는 “추후에 학과회의를 하면 이전의 학과회의처럼 다수결로 결과는 같을 수 있으니 간담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A교수가 불미스러운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구체적인 사안은 추후 회의를 통해 알려주겠노라고 말했지만 B교수는 회의를 방해했고, 해당교과 담당교수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해 언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혜린 양은 “A교수는 당시 간담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왜곡하고 있다”며 “B교수가 회의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담당교수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조다현 양은



▲ 지난달 31일 청문관과 생활과학대학 게시판에 붙은 두번째 대자보이다

“간담회에서 드러난 교수의 권위적인 태도처럼 학과 내 ‘상명하복식’ 운영이 의심스럽고 언행이 적절치 못했다” A교수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A교수와 의견을 달리했던 B교수는 “소신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냈지만 다수의 학생과 교수, 직원이 있는 앞에서 반말과 폭언의 피해자가 됐다”며 “학과회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의결이라 소수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화와 개선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 없이 수적 우세로 의결하는 지금의 회의는 소수의 권익을 훼손하고, 독과점에 의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 평행선을 이루는 대립 축제 3자의 대안은?

생과대 행정실 측은 “학칙 상 담당교수에게 학점교류 승인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본질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학점교류 기준이 명시화돼 절대적인 학칙으로 규정되면 오히려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을 배제할 수 있다”며 “어렵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최적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과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상으로 이에 대

해서 공개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학점교류와도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팽팽한 수평싸움에 대해서 아동가족학과 내의 제 3자의 입장은 어떠할까? 이만주(아동가족학 2014) 양은 “교수와 교수 사이, 교수와 학생 사이에 불미스러운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무분별하게 타학과와의 학점교류를 승인할 경우, 교내에서 전공강의를 듣기를 희망했던 학생들이 폐강으로 인해 강의를 못 듣게 될 우려도 있다”며 “명확한 학점교류 기준을 제시해 학점교류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계숙(아동가족학) 교수는 “물론 학생과 교수 사이에 자유롭게 개방적인 동시에 상호평등하고 배려적인 의사소통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수는 전문가로서 양질의 교육을, 교직원 은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을 대한다면, 신뢰가 형성돼 불통의 문제를 상당히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행정실 측은 “현재 구성원 간담회가 끝났고, TF 회의를 진행해 학점교류 등에 관해 각 그룹에서 준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승인 방식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아동가족학과 전체교원과 전체학부생이 참석하는 학과 간담회를 통해 TF 회의 결과와 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금연거리 시행 3년차, 그 현황은?

최병현 기자 chbh1027@khu.ac.kr

【서울】서울캠퍼스 정문 앞 도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흡연이 여전히 많다. 서울캠 금연거리는 정문 앞부터 회기파출소까지로 2013년 9월 지정돼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동대문구청에서 흡연단속을 하고 있으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거리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2014년에 21건으로 시작해, 2015년 10건, 2016년은 10월까지 15건으로 총 46건이 적발됐다. 이중 20대 적발자는 39.1%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해당 통계치는 정기적인 단속 없이 관련 민원이 있을 때마다 단속에 나서 적발한 수치로, 실제 흡연과 적발 건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금연거리에서의 흡연은 더욱 빈번한데 동대문구청 보건정책과 이매경 주무관은 “금연단속반 인원이 2명이어서, 적은 인원으로 동대문구 전체를 단속하다 보니 경희대학교 앞 금연거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다”며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동대문구청은 금연거리에서 흡연시 단속대상임을 홍보하고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지만, 적발자의 반발이 거센 것도 단속의 어려움이다. 동대문구청 금연단속반을 동행 취재한 결과 한 적발자는 “금연 안내 표지판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단속반에게 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은 전봇대 형태가 19개, 스티커 형태가 63개로 총 82개가 설치돼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정문부터 파출소까지 약 230m의 양쪽 인도에 5.6m당 하나씩 금연 안내 표지가 붙어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많은 안내 표지판 수에 비해 표지판 크기가 작고, 일부는 훼손돼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이 어려운 저녁시간대 흡연과 유학



## 2017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 모집학과 및 전공

구분	학과	전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제법학과	중국제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 장학제도

구분	학과	전공
공무원정학	수업료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다량, 정부위탁훈련생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공무원장학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수업료의 15%범위 내에서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평생교육진흥학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경희동문정학
조교정학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본교 및 동원경연전문대학 동문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목련장학, 모범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토요일 집중 강의 개설,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교차수강 가능

### ● 경희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6. 11. 21(월) ~ 12. 2(금) 17:00
- 전형일 : 2016. 12. 3(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 ₩50,000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예금주 : 법무대학원)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 2017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특별과정(비학위과정) 모집

### ● 모집 과정

- 과정명 : 미래법률지도자 양성과정
- 모집 인원 : 00명

### ● 모집 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 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으로서 변호사시험을 준비 하는 자
- 법학에 관심이 있는 자

### ●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특징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거나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법무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함

### ● 과정 이수

구분	과정	이수 기간	취득 학점
특별과정	미래 법률지도자 양성과정	1학기(16주)	10학점

※ 10학점 중 법무대학원 1과목(2학점)은 반드시 수강을 하여야 함  
 ※ 법무대학원 강의 : 화요일 야간(19:00~22:00), 토요일(9:00~12:00 / 13:00~16:00)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www.khls.ac.kr) 시간표 확인

● 등록금 : ₩3,000,000(입학금 없음)

### ● 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6. 11. 21(월) ~ 12. 2(금) 17:00
- 전형일 : 2016. 12. 3(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 ₩50,000 (하나은행 278-910030-40505 / 예금주 : 법무대학원)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전화 : 02 - 961 - 0905    •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중앙도서관 초청 공연

장욱주의 춤 만남\_11월 알스트로메리아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은 교내 구성원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욱주 교수(체육대학 겸임교수) 초청 공연을 개최합니다.

● 일 시 : 11월 24일(목) 15:00~16:00

● 장 소 : 예술디자인 대학 A&D홀

● 공연자 : 장욱주(체육대학 겸임교수) 및 가람무용단, 광개토 사물놀이패, 고금성

공연은 타악 및 퍼포먼스, 삼고무, 부채춤, 태평무 등으로 이루어지며 교내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 100만명의 촛불집회가 ‘휴지줍기운동’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전문가 칼럼

송영복  
스페인어학과 교수

참 오래간만이다. 답답하고 암울하던 세상에 모처럼 희망이 느껴진다. 솔직히 나라야 별써부터 꼴이 말이 아니었고, 국민들은 그냥저냥 목구멍에 풀칠하며 마지못해 살아왔다. 그러다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만은 건디지 못할 거야, 100만 명이나 모였는데……”, “여당이건 야당이건 혹은 한겨레건 조선일보건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성토하고 나섰는데 이번에는 무슨 사건이 나도 나겠지.” 대통령 하야가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통쾌하기까지 하다. 그동안의 암울하던 현실이 이 기회에 뭔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한다. “세상에 살다 살다 TV조선에 호트한 맘으로 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이번 사안의 폭발력이 가히 상당하기는 한가보다.

그런데 그런 통쾌함도 잠시, 이내 암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다.

대통령 퇴진과 공권력에 의한 관련자 구속 및 법정처리 그리고 부정 한 돈의 국고 환수 정도가 그나마 최선의 시나리오인 것 같다. 이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초라해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더해 현실적인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여론이 조용해질 때까지 버티며 몇 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이후의 호화로운 수감생활과 감형 그리고 정치적 화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려질 광복절 특사는 익숙한 수순이다. 이게 고작 우리가 바라는 것인가?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



▲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집회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나라의 법질서와 사회정의가 확립될 것으로 보는가? 자금의 현실을 있게 만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 너무도 뻔해 보인다.

그렇다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인간들이 성난 시민들에 의해 단두대에서 목이라도 잘리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의 주변에서 인간 말종의 모습을 보이며 거들먹거리던 쓰레기들이 종신형을 선고받고 회한의 눈물을 흘릴 것 같지도 않다. 경제면에서는 어떤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들이 노동의 고귀함을 알게 될 리도 없다. 애비 애미 잘못된 만남 절대 다수의 젊은이들은 다시 편의점 알바를 하며 자소서나 쓰고 있겠지. 국회의원과 검사들, 고위 공무원들과 군 장성들은 어떤가? 대학의 교수들이 그리고 문화계의 철밥통들이 뿌리까지 퍼진 비양심적 작태를 멈추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광화문광장에서 새로운 정의의 대통령을 위한 촛마도 출 수 있을까싶다. 이도 저도 아니

라면 오늘의 외침은 그냥 락 콘서트의 합성과 무엇이 다르랴. 집에 와 보면 찌든 현실이 그대로 늘어붙어 있는 그 멍멍이 같은 상황 말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또 몰타기 희망을 이야기 할 것이다. 차분히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 가꾸어 나가보자 하겠지. 교양인의 성숙한 자세로 폭력과 극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을 것 같다. 이럴 때 화합을 위한 양보와 타협이라는 소리도 멋지게 등장한다. 그리고 바쁜 일상은 다시 돌아가고, 잊혀지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시 현실은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제2의 박근혜를 만들어 내리라. 1945년에도, 1961년에도 1980년에도 항상 그래왔다.

민초의 합성에 의하여 나라가 온전히 세워진 역사가 한반도에 있거나 한가? 현재까지는 그런 적이 없기에 우리가 이제 노력해서 이루면 될 것이라는 말은,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것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란 감동적인 말은 집어치워라.

그럼, 어쩌자는 건가? 대답은 명확

하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줄잡아 하루에도 40여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렇게 죽어 자빠질 수밖에 없는 나라다. 자기 치지 않고 사는 정직한 사람들은 평균 수명마저도 낮은 나라다.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한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동안 기득권이 우리에게 주입시킨 관용과 화합이라는 덕목의 세뇌에서 벗어나야 한다. 100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죽일 수도 있어야 한다. 관용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인간들에 대한 준엄함 이후에 이야기 되어야 한다. 화합은 정의를 바로 세운 기를 위에서나 살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사적 필연이었으며 극히 당연한 사법적인 정의구현이다. 국가라는 틀의 존재 이유이고 인간과 사회의 기본이다.

만일 이번 사건의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며 바로잡지 않는다면 광화문 100만은 또 다시 교양 있는 시민들의 ‘휴지줍기운동’이라는 허탈한 해프닝에 그칠 것이다.

참여마당

정재한  
(경제학 2015)

## 미래를 책임질 우리부터 권위주위를 내려놓자

요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뉴스가 언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을 짓밟았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개인 혹은 소수의 집단이 국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불가능해야 하는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12일 촛불집회에서 100만 명의 국민이 외쳤던 대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문제가 해결돼 국정이 정상화 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촛불집회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단순히 좋아하기만 하면 될까? 안 된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규정하고 매듭지으면 안 된다. 한국 민주주의의 퀄리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한 사람이라는 알기 쉬운 기호만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일 국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고민 없이 대통령만이 바뀐다면 제2, 제3의 박근혜, 최순실, 우병우는 우리 역사에 또 다시 등장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교묘하게, 더 악랄하게 등장할지도 모른다.

“12일 민중총궐기가 하나의 촛불집회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앞장서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갈 우리 대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성세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성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변화를 이끌 더 큰 원동력과 잠재력은 대학생들에게 있다.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대학생들이 변화를 이끌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은 되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헬조선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에 나가 언젠가 부, 명예,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권위주의적 습관’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들이 가져오는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권위주의적 습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위를 이용하여 을(乙)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넘어서서 국정을 농락했고 단 한사람과만 소통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누군가 ‘갑’의 입장이 되었을 때 권위주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을’은 무서워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최순실 사태가 공론화되기 이전에 알았지만 묵인하고 있던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이 지금은 차례차례 나타나 증언을 하고 있다. 이 사태를 지켜본 우리는 도를 넘은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서로 소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현상유지와 발전이라는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대학생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대학

# DGIST

2017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21C 세계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DGIST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봄학기 전형 원서접수

12.15<sup>Thu</sup> ~ 12.29<sup>Thu</sup>

전공별 모집과정

전공	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뇌·인지과학전공	
뉴바이올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 개최일자/장소 : 매월 둘째주 금요일 / DGIST 서울홍보센터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시간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홈페이지 사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장학혜택 및 특전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

분류	내용
납입금 면제	전원 국비정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기숙사 입주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전공별 해외 우수대학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ürich, UC Berkeley),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국가 기대연구과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GIST 융합연구팀 및 소속 9개 센터 (DGIST-LBNL, 신물질연구센터, 마이크로레이저융합연구센터, DGIST-ETH마이크로로봇연구센터, 고신뢰CPS연구센터,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웰니스융합연구센터, 핵심단백질연구센터, 엘에이징연구센터)</li> <li>■ 한국뇌연구원</li> <li>■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li> </ul>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www.dgist.ac.kr/virtualtour



보도

# 빅데이터 속에서 살펴본 우리학교는 어떤 모습?

## 연관검색어 분석 결과

김규래 기자 rlarbfo41@khu.ac.kr

인터넷 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입력하고 공유하는 글 속에서 우리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소셜 매트릭스 서비스를 통해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에 언급된 우리학교 관련 80,255건의 연관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긍정·부정을 따질 수 있는 감성 연관검색어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좋다’, ‘예쁘다’, ‘따뜻하다’ 등의 연관검색어가 각각 1위부터 3위까지 차지했다. 반면, 부정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한 개만 순위에 올랐는데, ‘틀리다’라는 검색어였다. ‘틀리다’는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대부분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틀리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해당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한 달 간 발생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경희대', '경희대 학교' 등이 포함된 자료만 추출해 결과를 분석했다. 다음의 소셜 매트릭스 서비스는 앞서 언급한 긍정·부정의 의미를 담은 '감성 연관검색어'와 객관적으로 언급 빈도가 높은 '연관검색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15개 분석 결과,  
가을축제와 인근 대학교 언급 많아

연관검색어를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우리 학교가 어떤 단어와 함께 많이 언급되었는지도 알 수 있다. 연관 검색어 15개를 분석한 결과 단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나타났다. 첫 번째는 우리학교에서 최근 진행된 가을 축제 관련 검색어가 주를 이뤘고, 두 번째로 다가오는 임시 철에 맞춰 서울권 인근 대학교도 많이 언급됐다.

우선 최근 진행된 가을 대동제와 관련된 검색어가 6개였다. ‘축제’, ‘가요제’, ‘비스트’ 등이 높은 순위에 랐혔다. 사람들의 높은 관심으로 큰 흥행을 거뒀던 축제가 검색어 빈도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수능과 입시기간이 다가오면서 타 대학교 연관검색도 많았다. 서울대, 서강대, 건국대 등 여러 주요 대학들이 연관검색어에 올랐다. 해당 대학들은 각각 평균적으로 약 6천여 건의 검색 빈도를 보였다. 조사 시점에는 대학 연관어가 중간 순위에 그쳤지만, 앞으로 있을 수시 시험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기간이 되면 검색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단어에 대해 검색 빈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구글 트렌드 서비스로 최근 4년간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매년 11월, 12월마다 대학교의 검색빈도 증가 현상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급증 연관검색어’,  
최신 동향 나타내는 지표

한편, 앞서 언급한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면 우리학교와 관련해 단기간에 검색이 급증하는 ‘급증 연관검색어’와 지역별로 우리학교를 얼마나 많이 검색했는지 지역별 검색빈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급증 연관검색어’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학교의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어다.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간

우리학과 관련 급증 연관검색어는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경희대학교 OT’, ‘시국선언’, ‘대자보’ 등이었다. 임시철이라는 시의 성에 어수선한 시국이 맞물린 결과로 관측된다. 또 ‘경희대학교 헤르미온느’라는 검색어도 평소보다 3,300%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난 2012년 시간표 짜기에 서투른 신입생이 29학점을 담은 예비 시간표를 커뮤니티에 올려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았던 사건으로 마법을 사용해 동시에 수업을 여러 개 듣는 영화 주인공 ‘헤르미온느’에 빗대 생긴 별명이다.

우리학교의 지역별 관심도,  
전라도에서 가장 높아

지역별 검색 빈도를 기반으로 우리학교

에 대한 지역별 관심도를 추출해보면 결과 전라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 지역에서는 전라북도의 관심도를 100으로 놓았을 때 전라남도(88), 서울(72), 경기도(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35, 29의 수치를 보였고 부산광역시와는 그보다 적어 아예 집계되지 않았다. 더 간략한 단언인 ‘경희대’로 검색해보아도 결과는 비슷했다. 광주광역시(100)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남도(19)와 경상북도(18)의 관심도는 광주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학교에 대한 관심도 차이가 전라도와 경상도로 극명하게 나뉘었다.

한편, 우리학교의 랜드마크인 평화의 전  
당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같은 기간 9,884  
건의 언급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긍정적

인 연관어가 대부분이었다. 긍정 연관어는 '재밌다', '좋다', '깔끔하다' 등이 주를 이뤘고, 부정 연관어는 '잃어버리다', '분실하다' 등 두 개였다. 평화의전당은 대형 행사가 자주 개최되는 장소고, 따라서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이러한 연관검색어가 순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구설수가 연일 터져 나오는 요즘 같은 시기에, 소셜 미디어나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상에 퍼져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을 알아볼 수 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수 만 건이 모이면 여론이 되는 만큼, 지표를 통해 여론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급변하는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BMW 공식 딜러 한독 모터스

한독 모터스는 차량 구입에서부터 AS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BMW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www.bmwhandok.co.kr](http://www.bmwhandok.co.kr)

전시장

서초 (02) 595-0123      분당 (031) 781-0123  
방배 (02) 3477-0123      수원 (031) 223-7301  
강북 (02) 987-0123      서대구 (053) 623-7301  
용산 (02) 3275-0123      광주 상무 (062) 382-7301

서비스 센터

서초 중앙 (02) 466-7301  
서초 (02) 521-7301  
방배 (02) 3477-7401  
강북 (02) 3444-7301

분당 (031) 8016-7301  
수원 (031) 206-7501  
서대구 중앙 (053) 655-7301

## 패스트레인 서비스

용산 (02) 718-1222  
서대구 (053) 653-7301  
광주 상무 (062) 384-7300

BPS

수원 (031) 282-7301